

저는 억울합니다



- 신청인의 반박 광고에 대한 기자의 조정청구를 각하한 사례

필자는 전북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유독 특정 지역 몇 곳의 조정신청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고도 궁금했다. 도시가 확장되는 도농복합지역은 각종 개발 및 이권 관련 분쟁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인구 3만 남짓한 농촌지역은 다 형님 동생 사이일 듯한데, 왜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

이러한 연장선에서 최근 이 지역 조정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들어온 건은 이 지역의 일부 민간단체장들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유력 A민간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대표와 사무국장이 신청한 사건이다.

보도에는 단체명이나 임원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A단체 사무국장이 지난 군수 선거 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어느 단체의 누구인지 주위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관할 검찰청에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작년 6월 군수 선거 때 처벌받은 그 지역 인사 명단을 받았더니 역시나 3인에 불과했다. 언론사 답변서 내용과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사실조회 회신을 검토해 보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였다.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권했더니 담당 데스크는 지역주재기자가 익명처리를 했는데 왜 정정보도를 해야 하나며 사표를 쓰겠다고 한다면서 난감해 했다.

보도에 화가 난 신청인들이 조정신청 전 지역신문에 의견 광고로 해당 기자의 기사에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 역시 조정에 암운을 드리웠다. 기자가 의견 광고를 보고 신청인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것도 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듯 했다. 장내에서 싸울 선수들이 경

기장 밖에서 먼저 싸우는 듯한 광경이랄까.

그래도 신청인과 기자가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사이라고 했으니까 중재위에서 원만히 합의하면 기자도 고소 취하할 것으로 생각해서 양 당사자를 상대로 조율을 했고, 고소취하를 포함한 조정안을 만들었다. 심리 결과 우여곡절 끝에 정정 및 반론보도로 일괄 합의되었다. 합의서에 일괄 해결을 위해 고소취하를 위한 기자 사인란도 넣었으나 기자는 심리 후 사라져 버렸고 그냥 신청인들과 언론사간의 합의가 성립했다.

사건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심리 후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찾아온 기자는 억울해서 한숨도 못 잤다면서 지역에 실린 신청인들의 반박광고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 보도문이 의견 광고로 보이고 의견 광고는 위원회 관할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접수해 달라고 했다.

사건이 사건을 묻고 들어오는 것은 위원회 담당자들이 우려하는 케이스. 하지만 어찌랴, 합의는 시켜도 화해는 못시키는 사건도 있는 법. 중재부의 예비심리 결과, 본 조정대상 글은 의견 광고에 해당하고, 의견 광고는 위원회 관할인 언론보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지로부터 한 달 치 신문을 받아 보니 독자 투고와 해당 광고는 형식이 다르며, 신청인들이 광고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광고 판단의 이유. 또한 의견 광고는 광고주의 주장일 뿐,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도 추가되었다.

결정 후 신청인 기자에게 통보하니 여전히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다. 신청인과 기자가 지역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던 예전의 관계로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인가. 아직도 궁금하다.

